

한국 대학의 동남아시아 관련 교육과정: 현황과 대안*

전제성** · 박사명*** · 김현경****

요약

정부의 신남방정책 추진으로 동남아시아 관련 교육은 한국 역사상 최대 호기를 맞이하였지만 여전히 저발전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관련 전공과 과목 개설의 측면에서 희소하고 일부 지역의 대학에 국한되어 있다. 동남아 관련 교육의 심화와 확산을 통한 사회적 인식의 전환이 없다면, 신남방정책은 그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 지역적 파급 효과를 갖는 국립대부터 동남아학 관련 학과나 전공의 창설, 교과목의 신설, 동남아 언어교육의 혁신에 나서야 한다. 입학정원의 유연성이 적기 때문에 학부 연계전공과 대학원 협동과정의 창설이라는 우회로를 거치는 게 더 순조로운 방법일 것이다. 동남아 전문 교원이 각 대학에 산재된 상황을 감안하면 대학원 협동과정은 초대학적 온라인 연계 방식으로 창설하는 방안이 실행될 필요가 있다. 동남아언어교육은 강사와 수강생이 충분하지 않은 한국 상황을 고려하면 방학 중 집체교육 방식으로 추진되어야 효과적일 것이다. 대학의 교

* 이 논문은 전북대 동남아연구소에서 “한국 대학의 동남아 교육 실태와 개선 방안”이라는 제목으로 2020년 6월 24일에 발간한 전동연 이슈페이퍼 제4호를 수정하고 보강한 것이다. 대학원 협동과정 창설 방안은 전북대 동남아연구소 주최 화상세미나(2021년 2월 8일)에서 의견이 교환된 바 있는데, 당시 고견을 들려준 참여자들에 감사드린다. 건설적으로 제안하고 격려해준 익명의 심사자들에게도 감사한다.

** 주저자. 전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겸 전북대 동남아연구소 소장, jjeseong@gmail.com

*** 공저자. 강원대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 smapark@hanmail.com

**** 교신저자. 전북대 동남아연구소 객원연구원, mhduomo@gmail.com

육과정을 국가적 목표에 조응시키기 위해 정부 부처들은 제각기 대학 교육 과정을 지원하는 각종 사업을 가동하고 있다. 신남방정책 추진 관련 기관들도 동남아학 교육과정의 확산을 진정 원한다면, 이런 지원 사업들을 연구하여 독자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면 될 것이다. 우리 동남아학계도 정부만 바라보지 말고 대학에서 동남아시아 관련 교육을 확산시킬 방안을 선제적으로 창안하고 실천해야 할 것이며, 교육 성과와 과제를 집단적으로 논의함으로써 정보와 지혜를 주기적으로 공유해야 할 것이다.

주제어: 동남아시아학, 고등교육, 대학원, 국립대, 협동과정, 연계전공, 언어캠프, 신남방정책

I. 문제 제기: 풍요 속의 빈곤

우리나라 동남아지역연구자들은 지역연구뿐만 아니라 학문 후속세대 육성에 관하여 깊은 관심을 피력해왔다. 특히 신윤환 교수를 비롯한 제2세대 동남아 연구자들이 등장한 1990년대부터 어느 지역연구집단보다 더 열성적으로 구체적인 방안을 제기하고 실천을 전개해왔다. 2000년대에는 지역연구인력양성의 ‘동남아학계 모델’이라고 일컬어지는 전략이 완성되었다(전제성 2019). 그런데 학계의 회원 증대 추이를 보면 후속세대 육성의 성과는 기대와 투자만 못하였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동남아학계의 교육 전략이 대학 밖에 집중되었기 때문이다. 지역연구 전문인력이 교육을 제공하고 학위를 수여하는 대학에서 궁극적으로 배출되므로 우리의 실천을 대학 속에서 더 전략적으로 전개할 필요가 있었다. 그런데 동남아시아학 교육과정의 측면에서 보자면 지난 30년간 서울대 학부에 동남아언어문명전공과 서강대 대학원에 동남아시아학 협동과정이 창설된 것 외에 두드러진 진전을 찾기 어려운 실정이다.

시절은 좋아서 정부의 신남방정책 추진으로 동남아지역학은 ‘단군 이래 최대 호기’를 맞이하고 있다. 신남방정책은 기저에서 전개되는 동남아와 한국 관계의 눈부신 발전이 외교적으로 투영된 결과이다. 한국 경제에서 동남아는 무역 2위(중국 1위), 투자 2위(미국 1위), 건설공사 1위(중동 2위), 노동 2위(중국 1위), 한류 3위(일본 1위, 중국 2위), 관광 1위 등 막중한 위상을 차지한다. 동남아의 중요성은 경제 영역에 국한되지 않는다. 한반도 평화와 동아시아의 세력 균형을 위해서도 한국과 동남아의 연대가 중요하다. 이렇게 우리 학계가 오랫동안 강조했던 바가 이제는 정부 차원에서 주장되는 시절이 도래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 11월 25일 부산에서 개최된 한·아세안특별정상회의 환영 만찬사에서 “아세안의 꿈이 한국의 꿈”이라고 역설하였다.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이런 강도의 발언은 사상 최초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아세안 사람들의 꿈은 무엇인지, 꿈을 이루기 위한 분투의 과정은 어떠한지, 그들과 함께 어떻게 꿈을 이룰 것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을까? 동남아의 정치, 외교, 사회, 경제, 환경, 역사적 맥락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질과 양태, 그리고 도전 과제에 관한 학습과 연구의 증진 없이는 ‘사람 중심의 신남방정책’이란 실효성 있는 실천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공허한 사상누각으로 귀결될 수 있다. 그래서 연구와 교육의 중심인 대학의 책임이 막중한 것이다. 그런데 동남아시아학의 측면에서 대학은 별로 달라지지 않았고 특별한 처방과 실천 없는 앞으로 크게 달라질 것 같지도 않다.

우리는 이런 문제의식에 입각하여 우리나라 대학의 동남아시아 관련 교육과정 현황을 파악하고 교육 확산 전략을 수립하는 연구를 함께 진행하였다. 2장에서 선행연구를 검토하면서 우리가 착안하거나 더 집중해야 할 바가 있는지를 확인하였다. 물론 우리는 동남아학계가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실험했던 유산을 계승 발전시키겠다고 다짐했다. 3장은 학부와 대학원의 학과(전공) 개설과 교과목 개설 현황을 정리하여

보여주었다. 학과(전공) 현황은 교육통계서비스와 대학편람을 참조하였고 희소성과 편중성이 여전하다는 것을 재확인하였다. 교과목 현황은 조사 범위가 넓어 거점국립대학으로 국한하여 조사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4장에서 교육과정 확산 방안으로서 학과(전공) 창설과 언어교육 혁신 전략이 모색되었다. 5장은 교육과정 확산을 위한 동기부여 필요성과 관련 정책 검토가 수행되었다.

II. 선행 연구 검토

우리나라에서 ‘지역학’과 ‘교육’을 연계시킨 연구 성과는 스무 편을 넘기지 못한다. 더구나 이런 연구들은 주로 2000년대 초반에 많이 산출되었으며 2010년대에 발간된 성과는 세 편뿐이었다(정남모 2011; 김상욱 외 2016; 구본석 외 2019). 2000년대 초반에 연구 산출이 상대적으로 많았던 이유는 한국학술진흥재단이 당시 한시적으로 운영했던 대학교육과정개발연구지원사업 덕분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연구 성과의 대다수는 새로운 전공 교육과정의 창설보다는 기존 전공 교육과정의 개선과 혁신에 관한 연구들이었다. 특히 언어(주로 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등 유럽 언어)나 어문학 전공에 지역학 교과목을 포괄하는 방향으로 재구성할 필요와 방안에 관한 연구가 많았다(김준호 1999; 임상래 2001; 김순임 외 2004; 이진희 2008; 김정석 2008; 김정석 2009; 유수연 2013). 이런 유형의 연구들 가운데 우리 연구와 관련이 깊은 연구는 김정석의 연구인데, 그는 프랑스어전공의 지역학적 재구성의 방편으로 학문분과를 넘나드는 개방적 연계전공과 대학원 과정을 개발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런 주장은 지역학 교육의 발전을 위해 바람직한 방향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전략과 유사성이 있으나 이미 어학이나 어문학 전공이 있는 상황에서 그 재편 및 확장을 모색하는

방법론이라는 점에서 우리의 연구와 기본적인 차별성이 있다.

우리가 앞으로 소개할 연계전공 창설 전략에 대해서 김정석 외에도 여러 연구들이 이미 지역학 교육 발전 전략의 일환으로 제시한 바 있다. 특히 고혜선 외(2004)의 중남미지역학 연계전공 창설방안 연구가 구체적이고 흥미로운 내용을 담고 있다. 국내외 대학의 연계전공과 중남미지역학 교육과정 현황을 돌아보고 연계전공으로서 중남미지역학 교육과정 시행안을 제시하였다. 특이한 점은 지역학연구소의 역할을 강조한 것인데, 미국의 플로리다대학교와 텍사스대학교의 라틴아메리카연구소들이 연계전공을 운영하는 사례를 도입하여 단국대 아시아아메리카문제연구소가 중남미지역학 연계전공을 총괄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연계전공은 형식적으로 주관학과와 참여학과가 있어야 하지만 연구소가 학과 간 조정과 실질적인 기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참조할만한 주장이다.

동남아지역학 분야에서 교육 진흥방안에 관한 선제적 연구로 전제성과 이재현의 연구(2008)가 있다. 2007년 10월에 개최된 한국동남아학회 창설 15주년 기념 학술대회의 기획 패널에서 처음 발표되었던 이 논문은 국내 대학의 동남아 교과목 개설 현황과 국제대학원들의 전공 개설 실태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학문후속세대 육성의 대안을 찾고자 했다. 우리 대학의 동남아 관련 교육의 문제로 희소성, 분절성, 편중성을 지적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동남아학부 창설, 동남아강좌 개선, 현지방문기회 확대, 무료강의와 집체교육을 포함한 다각적인 동남아언어교육운동 등을 포괄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동남아학계의 자구책을 촉구하는 이러한 제안은 노무현정부 때 제시한 국립해외지역연구원 창설방안(전제성 외 2004)이 주목받지 못했던 경험을 반영한 것이다. 같은 해에 박사명도 국내 대학의 동아시아학 교육과정에 관한 비판적 연구를 발표하고 학술지에 게재하였다(Park 2008; 박사명 2008). 박사명은 한국 대학의 동아시아학 교육과정의 중

국·일본 편중성과 정태성을 비판하고 ‘평화, 번영, 진보의 동아시아공동체’ 추진 동향을 미래지향적으로 담아낼 수 있도록 동남아를 포괄하는 광의의 동아시아학 교육으로 재편할 것을 제안하며 지역의 역동적 변천을 반영하는 교과 편성 설계까지 제시하였다. 이어서 신윤환은 라틴아메리카지역전문가 이성형과 함께 작성한 해외지역연구 인력양성 방안에 관한 한국연구재단 정책연구보고서를 통하여 국제대학원의 전 공지역 편중에 대한 대안으로 대학원 협동과정의 활성화를 제안하였고 특수 지역 언어교육의 특정 대학 편중에 대한 보완책으로 대학원생들을 위한 특수언어방학캠프의 창설을 제안하였다(이성형 외 2010).

이렇게 십여 년 전에 이미 문제의 심각성이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극복 방안까지 상세하게 제안되었지만, 상황은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 따라서 우리나라 대학의 동남아 관련 교육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최근까지 계속 이어졌다. 한·아세안센터의 하채균은 우리 대학의 동남아 관련 전공 운영 현황을 조사하고 이런 교육과정의 희소성이 한·아세안 협력의 “약한 고리”라는 조사보고서를 발간했다(하채균 2018; 연합뉴스 2018/10/05). 박사명은 사단법인 한국동남아연구소 이사장 명의로 2019년 9월에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거점국립대에 동남아 관련 학과를 증설할 것을 청원하고 그 내용을 한국동남아연구소 회원들에게 회람한 바 있다. 이재현은 동남아 교육과 연구에서 대학의 미진함을 지적하며 국가가 나서 국립지역원을 설립할 것을 재차 제안하였다(국민일보 2019/09/10). 인도네시아대사와 한·아세안센터 사무총장을 역임한 김영선도 한국의 동남아학을 육성할 필요성을 언론 지면을 빌어 역설한 바 있다(한국경제 2019/11/25).

가장 최근의 논문은 베트남어와 지역연구의 융복합 전공을 온라인 기반으로 창설할 것을 제안한 구본석과 서정목의 연구(2019)이다. 언어 교육과 지역연구 교육을 결합시킬 필요성과 교육과정 설계뿐만 아니라 온라인 교육방식, 관계기관의 연계와 학점교류라는 구체적인 전

략까지 제시하였다. 사실 우리는 이들 논문의 존재를 인지하지 못하고 주장을 펼쳤는데 이들이 이미 상당히 유사한 수단과 전략을 제시하고 있어 놀랍고 흥미롭게 받아들였다. 그런데 온라인 교육 인프라를 대학 자체가 아니라 한국방송통신대학에게 의존하고, 베트남어 교육과정을 이미 개설한 대학들의 연계를 기본으로 삼고 있어 전공 미개설 대학으로의 확산성이 약할 수 있다는 점은 아쉬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기반의 대학 간 연계전공의 창설 방안을 선제적으로 제안한 논문으로 주목받아야 할 것이다.

돌이켜보면 여러 지역연구 학계 가운데 우리 동남아학계가 지역학 교육진흥방안에 관하여 가장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방식으로 주장을 계속 펼쳐왔던 것 같다. 주장에 그치지 않고 헌신적인 열정으로 실천에 나선 이들도 많았다. 우리는 동남아학계의 비판적인 문제의식과 진취적인 열망을 계승하고 지금까지 제시된 구체적인 대안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 논문에 반영하고자 한다.

Ⅲ. 동남아 관련 교육 실태: 지속되는 희소성과 편중성

1. 동남아 관련 학과 및 전공 현황

우리는 먼저 우리나라 대학 학부의 동남아 관련 학과 및 전공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교육통계서비스 사이트에서 2019년 고등교육기관(대학) 학교별 학과별 데이터셋을 활용하여 검색 분류하였다. 그리고 이렇게 파악된 해외지역 관련된 학과 및 전공의 포괄적 현황을 <표 1>에 정리하였다. 아시아 관련 학과(전공) 531개 가운데 동남아 11개국 관련 학과(전공)는 15개뿐이었다. 반면에 중국학과(전공)는 255개, 일본학과(전공)는 181개여서 아시아 관련 학과 편재의 내적 불균형은 매우 심

각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무려 8만을 넘는 재중·재일 유학생까지 감안한다면 전체적인 인력양성 차원의 불균형은 더욱 심할 것이다.

〈표 1〉 국내 대학 학부의 해외지역 관련 학과 및 전공(2019년)

학과(전공)	일반대학	전문대학	합계
동북아	7	-	7
동아시아/동양	36	-	36
아시아/아시아태평양	20	1	21
중국어문학·중국어학	205	50	255
일본어문학·일본학	141	40	181
동남아	15	-	15
기타 아시아	16	-	16
소계	440	91	531
영미어문학·영미학	228	41	269
프랑스어문학·프랑스학	77	-	77
독일어문학	79	-	79
러시아어문학	47	2	49
스페인어문학	27	-	27
기타 유럽어문학·유럽학	36	-	36
소계	494	43	537

출처: 교육통계서비스 “2019 고등교육기관(대학) 학교별 학과별 데이터셋”
(검색일: 2020.03.03).

이어서 우리는 동남아 15개 학과 및 전공을 자세히 살펴 <표 2>에 정리해 보았다. 우선 대부분의 학과 및 전공이 한국외대와 부산외대에 개설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충청지방의 청운대 베트남학 전공만 빼고 나머지 모든 학과와 전공이 수도권(서울과 용인)과 부산에 편중되어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 여전히 교육과정은 어학이 중심이며, 지역학적 경향성을 표방하는 곳은 서울대 동남아시아언어문명전공 뿐이었다. 지난 수십 년간 동남아가 신흥지역으로 부상한다거나 블

루오션이라거나 동아시아지역협력의 중심이라거나 다문화와 이주의 시대라면서 동남아 관련 교육의 필요성이 다각적으로 강조되어 왔지만, 대학은 달라지지 않았던 것이다.

〈표 2〉 국내 대학 학부의 동남아 학과 및 전공 현황(2019년)

지역	대학	학과 및 전공	입학 정원	지원자	입학자	전임 교원
서울 경기	서울대학교	아시아언어문명학부 동남아시아언어문명전공	-	-	13*	1
	한국 외국어대학교	말레이인도네시아어과	30	438	34	5
		베트남어과	30	510	36	6
		태국어과	30	468	31	4
		말레이·인도네시아어통번역학과	30	202	33	6
		태국어통번역학과	30	243	33	3
	사이버한국 외국어대학교	베트남·인도네시아학부 베트남학전공, 인도네시아학전공	-	-	126	2
부산	부산 외국어대학교	동남아창의융합학부 태국어·라오어트랙,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필리핀어트랙, 베트남어·캄보디아어트랙, 미얀마어트랙	160	723	162	20
	영산대학교	글로벌학부 베트남지역전공, 인도네시아지역전공**	-	-	-	2
충남	청운대학교	베트남학전공	30	158	30	5

출처: 교육통계서비스 “2019 고등교육기관(대학) 학교별 학과별 데이터셋”(검색
일: 2020.03.03) 및 대학정보공시.

* 2020년 3학년 전공학생 수. 서울대 동남아시아언어문명전공주임 여운경
교수 제공.

** 영산대학교 글로벌학부 산하 전공은 현재 한·베트남통역전공과 K-비즈
니스전공으로 개편됨.

주의: 연계전공 현황은 교육통계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없음.

2. 동남아 교과목 개설 현황

우리는 한국의 대학에서 개설된 동남아 관련 과목들이 여전히 희소하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했다. 과목 개설 현황을 파악하려면 각 대학의 편람을 들춰봐야 하기에 우리는 거점국립대로 조사 범위를 국한하였고 그 결과를 <표 3>에 정리하였다.

<표 3> 거점국립대학 학부의 동남아 관련 과목(2020년 1월)

대학교	단과대학	학부/학과(전공)	과목(개)	계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아시아언어문명학부	21	26
		동양사학과	3	
	사회과학대학	인류학과	1	
		정치외교학부(외교학전공)	1	
전북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과	3	14
	인문대학	사학과	1	
		고고문화인류학과	1	
	우수학생 기숙형대학(HRC)		1	
충남대학교	인문대학	사학과	1	
	연계대학	아시아비즈니스연계전공	1	
경북대학교	인문대학	고고인류학과	1	
	대학공통		1	
충북대학교	사범대학	역사교육과	1	
강원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문화인류학과	1	
부산대학교	경제통상대학	국제학부	1	
경상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과	1	
전남대학교			0	
제주대학교			0	

출처: 각 대학 편람(2020년 1월). 일부 학과 홈페이지 참조하여 수정함.

서울대가 동남아 관련 과목을 26개나 개설한 점이 예외적으로 돋보인다. 최근에 서울대에 아시아언어문명학부와 그 산하의 동남아시아언어 문명전공이 창설된 덕분이다. 이 하나의 전공에서 동남아 교과목을 21개 개설하고 있다. 반면에 지방거점국립대학의 경우를 보면 처참한 수준이다. 9개 지방거점국립대학에서 개설한 동남아 관련 과목이 14개에 불

과하다. 5개 과목을 개설한 전북대가 예외적이고 나머지 대학은 1-2개 과목만 개설하거나 아예 개설하지 않았다.

〈표 4〉 거점국립대학 대학원의 동남아 관련 과목(2020년)

대학교	대학원 학과	과목명	과목수
서울대학교	아시아문명학부	동남아시아문명연습, 인도·동남아시아사연습	8
	동양사학과	월남사연구, 근대월남사연구, 동남아시아사연습	
	국제대학원 국제학과 국제지역학전공	동남아의 정치경제, 한국과 동남아관계	
	국제농업기술대학원 국제농업개발협력전공	동남아지역경제론	
부산대학교	국제전문대학원 국제지역협력전공	동남아지역연구 1 & 2, 인도차이나지역연구	9
경상대학교	국제관계학과	동남아정치론	
	민속무용학과	동남아시아비교무용 1 & 2 (인도네시아)	
전북대학교	정치학과	동남아시아정치경제론	
전남대학교	아시아문화협동과정	동남아시아문화연구	
충북대학교	사학과	동남아시아사연구	
충남대학교	-	-	
강원대학교	-	-	
경북대학교	-	-	
제주대학교	-	-	

출처: 각 대학 편람(2020년 1월) 조사 이후 각 기관 홈페이지 통한 보강조사 결과.

거점국립대 대학원 교과목 개설 현황은 더 심각했다. 대학원 교과목은 관심 환기 수준을 넘어서는 전문적인 지식 전수와 학문 후속세대 육성이 추진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기본적인 지표로서 중요하다. 그런데 <표 4>에서 보이듯이 9개 지방거점국립대학 가운데 동남아 관련 대학

원 과목을 개설한 곳은 5개 대학에 불과하고 나머지 4개 대학은 한 과목도 개설하지 않았다. 전북대, 전남대, 충북대에서는 한 과목씩 개설되었을 뿐이다. 이러한 현상은 기본적으로는 대학에 동남아전문 교원이 희소하고 동남아 관련 학과나 전공이 부재하기 때문이지만, 그렇다고 이런 현상을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다.

3. 동남아 언어교육 현황

동남아지역학 교육에서 현지어 교육은 필수적으로 요청된다. 그러나 우리나라 대학에서 동남아언어교과목을 가시적인 규모로 개설한 대학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동남아 언어교육의 선봉에 한국외대와 부산외대가 있다. 후발주자로서 서울대는 동남아시아언어문명전공의 노력 덕분에 11개 언어 과목을 개설하는 데 성공하였다. 그런데 우리가 <표 5>에서 제시하듯이 9개 지방거점국립대학 가운데 7개 대학은 어떠한 동남아 언어 교과목도 개설하지 않고 있다. 지방거점국립대 중에 전북대가 인도네시아어 초급수준의 강의를, 경북대가 베트남어를 교양강의로 개설하고 있을 뿐이다.

동남아 언어교육 역시 수도권과 부산에 집중되는 지역적 편중성을 노정하고 있다.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외대와 부산외대 등 일부 대학이 동남아 언어교육 관련 정부 지원을 받고 있다. 그런데 이 사업의 결정적 약점도 지역적 편중으로 인한 ‘확산성의 결핍’이다. 크메르어나 타갈로그어 등 일부 언어의 경우 교원과 수강생 모두 희소한 문제도 안고 있다. 결국 동남아 언어교육을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더 창조적이고 혁신적인 교육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표 5〉 거점국립대학의 동남아 언어 관련 과목

대학교	단과대학	학부/학과(전공)	과목(개)	언어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아시아언어문명학부	11	인도네시아어, 베트남어, 태국어
전북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과	1	인도네시아어
	우수학생 기숙형대학(HRC)		1	인도네시아어
경북대학교	대학공통		1	베트남어
충남대학교			0	
충북대학교			0	
강원대학교			0	
부산대학교			0	
경상대학교			0	
전남대학교			0	
제주대학교			0	

출처: 각 대학 편람 조사(2020년 1월)

IV. 개선 방안

1. 동남아학 전공 교육과정 신설

동남아학 교육이 사립대학·어학전공·특정 지역에 희소하게 편중된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동남아 학과 및 전공을 대폭 증설하고, 전공과목도 역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분야를 두루 포괄할 수 있도록 확충되어야 한다. 즉, 학과를 초월하여 학제적인 지역연구를 교습하는 동남아지역학과(전공) 창설이 하나의 지름길이다. 서울대 아시아언어문명학부에 동남아언어문명전공의 창설이 대표적인 선례이다.

동남아 관련 교육의 전국적 확산을 위해서는 국립대부터 변하기 시작해야 한다. 서울대를 제외한 국립대학 가운데 동남아 학과나 전공이 개설된 대학은 한 곳도 없다. 신남방정책이라는 국가전략은 물론이고

다문화 현상이라는 지역사회 필요에도 부응하지 못하는 매우 수구적인 현상이다. 국립대학들이 안일한 완몽에서 깨어나 동남아학 전공을 설립하기 시작한다면 전국 도처의 다른 대학들에 대한 확산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새로운 학과 창설은 학생과 교원을 필요로 한다. 동남아 교육과정 증설을 단기간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국립대 신입생과 교원의 수를 늘려주는 하향식 정책이 최선이다. 국립대에서 새로운 학과를 개설하려면 학부 신입생 정원을 배정받아야 한다. 국가적 필요에 따라 신산업분야 첨단학과 신설이 권장되는 것처럼 신남방분야도 정부가 의지를 갖고 정원을 특별 배정해야 학과 창설이 순조롭게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차선은 대학 스스로 내적 결의와 조정을 통해 추진하는 방법이다. 정부가 학생 및 교원 정원을 특별히 늘려주지 않는다면 다른 학과, 특히 정원 미충원 학과로부터 정원을 넘겨받아야 한다. 입학 정원을 충족하지 못하는 학과의 신입생 정원은 물론이고 중도 이탈과 편입생 부족으로 인해 발생하는 학과별 결손 인원을 넘겨받는 방식으로 신설 학과의 정원을 배정할 수 있다. 교육부의 “2021학년도 대학 학생정원 조정계획 보완사항”이 이런 방식으로 첨단 분야 학과의 신설 및 증원을 가능토록 유도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참조해야 한다.

2021학년도에는 일부 지방국립대학들이 사실상 미달인 초유의 상황에 직면하였다(브레인뉴스 2021/01/13), 지원자 급감은 지방국립대학의 교육 혁신을 압박할 것이고 지원자들에게 매력적인 학과 신설을 위한 학과 간 정원 조정의 가능성을 강화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선제적인 실험이 최근에 국립대보다 유연한 사립대에서 먼저 시도되었다. 단국대학교(천안캠퍼스) 외국어대학의 아시아·중동학부가 베트남학 전공을 2021학년도부터 신설하고(조선일보 2020/07/20), 20명의 신입

생을 모집하고 전임교원도 채용하였다. 이러한 시도는 동남아시아학 전공 창설을 희망하는 우리들에게 매우 고무적인 변화이며 우리의 주장이 헛되지 않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2. 학부 연계전공과 대학원 협동과정 창설

신입생 정원의 제한을 받지 않으면서 교육과정을 신규로 설립할 수 있는 방안은 학부 연계전공과 대학원 협동과정 창설이다. 대학별 학칙에 따라 2개 혹은 3개 이상의 학과가 함께하고 주관학과가 제출한 설립안이 대학의 학무회의를 통과하면 창설이 가능하다. 학생들의 학위 이수를 위한 최소학점을 고려하면 연계전공은 42학점 이상, 협동과정은 36학점 이상의 교과목으로 교육과정을 편성해야 할 것이다. 연계전공은 2학년 이상의 학부생이 복수전공(42학점 이수 의무)이나 부전공(21학점 이수 의무)으로 선택하는 전공이어서 학부 신입생 정원과 무관하다. 협동과정은 대학원 신입생을 모집하기 때문에 정원에 관계되고 기본적으로 교육부의 “대학원 정원조정 및 설치 세부기준”에 따라야 하지만 대부분의 대학에서 대학원 정원이 남아돌아 정원 배정에서 덜 갈 등적이다. 연계전공 창설은 학부생의 선택권을 증대시키고 다양한 교육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협동과정 창설은 대학원 재학생을 증대시켜 대학 재정에 도움을 준다는 측면에서 대학의 정책결정자들이 기본적으로 수용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학부 연계전공 창설 사례로 한남대 창의융합학부의 베트남지역학 전공이 있다. 구본석 외(2019)의 연구에서 언급된 바 있는 이 전공은 2016년에 신설되었고 3개 학과(글로벌비즈니스전공, 글로벌IT경영전공, 교양융복합대학)가 참여하고 있다. 전공을 이수한 학생들에게 ‘베트남지역학사’ 학위가 수여된다. 한남대 창의융합학부 홈페이지를 살펴보면 이 연계전공은 베트남에 특화된 8개 과목 - 베트남어 4개(초급,

중급, 고급, 고급비즈니스베트남어)와 베트남지역학 4개(베트남비즈니스, 베트남사회와 문화, 베트남역사, 베트남정치와 경제) - 을 포함하여 총 21과목 63학점으로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있다. 전공 필수과목은 초급베트남어, 베트남비즈니스 2과목이다. 연계전공 주임교수뿐만 아니라 산학협력중점교수 2명도 이 전공에 배치된 점이 돋보인다.

본격적으로 동남아 관련 연계전공을 만들 수 없다면 영역을 넓힌 전공 창설이라는 우회로를 택할 수도 있다. 전북대의 동아시아·다문화 융·복합 연계전공 사례가 이런 경우에 해당된다. 동남아를 포함하는 광역의 동아시아지역학과 다문화주의 및 이민학 교육을 결합한 이 연계전공은 정치외교학과가 주관하고 고고문화인류학과와 일본학과가 참여하여 2014년에 창설되었다. 정치외교학과와 동남아 전공 교수가 주임교수를 겸임하고 운영위원은 11명이다. 이들이 팀티칭으로 참여하는 한 과목(동아시아 다문화의 이해)만 전공필수과목이고, 26과목 72학점으로 교육과정을 편성했는데, 동남아 과목은 5과목(동남아시아 정치론, 동남아시아의 역사와 문화, 동남아의 언어와 문화, 인도네시아의 언어와 정치, 동아시아와 아세안)이다. 소속 대학에 동남아 전문 교원이 적고 개설 과목도 부족할 경우에 고려할 만한 대안이다.

동남아시아학 대학원 협동과정의 선례는 서강대 사례에서 찾아볼 수 있다. 서강대의 동남아시아학 협동과정은 동아연구소가 주도하여 2013년에 창설되었다. 동아연구소, 정치외교학과, 사회학과, 사학과 소속 10명의 교수가 협동과정 운영에 참여하고 있다. 지역학 학위를 수여하고 최근에 박사과정까지 개설하였다. 그런데 서강대 사례는 안정적인 궤도에 올라선 바람직한 협동과정이지만 매우 비싼 경우로서 널리 적용되긴 어렵다. 왜냐하면 동아연구소가 한국연구재단의 인문한국(HK) 사업에 선정되어 10년간 매년 10억씩 지원받아 5명의 전임교수를 채용할 수 있었기에 가능한 성과였기 때문이다.

전북대의 경우 석사과정 신설의 최소 조건으로 5명의 관련 교원 확

보가 명시되어 있다. 교원을 확보하여 협동과정을 애써 창설하더라도 신입생 모집과 졸업생 배출에 실패한다면 폐과될 수도 있다. 전북대에서 무역학과 주관으로 스페인중남미학과와 의류학과와 함께 협력하여 창설했던 석사학위 협동과정 중남미·패션·통상학과는 2021년도에 폐과 처분되었다(전북대 2021). 동남아 전공 교원이 있더라도 한두 명에 불과한 대부분의 대학 실정에서 동남아지역학 협동과정의 창설과 지속 가능한 운영은 대학을 초월할 때 비로소 가능할 것이다. 그런데 지금 대학 교원들은 코로나19라는 팬데믹에 대응하면서 비대면 화상 강의에 익숙해지고 있다. 처음엔 번거로웠으나 지금은 장점도 발견하고 있다. 이런 위기이자 기회를 겪으며 새로이 습득하고 친숙해진 기법을 활용하면 초대학적으로 대학원 협동과정을 창설할 수도 있을 것이다. 전국적으로 흩어져 있는 동남아 지역학 전공 대학 교원들이 합의하고 연대하여 동남아지역학 협동과정을 만들고 역시 흩어져 등록한 대학원생들에게 화상으로 원격 강의하는 방안이다. 교원들은 각자의 과목을 각자의 전문성에 맞게 구체적으로 개설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런 과목들을 모아 잘 엮는다면 심화 교육이 가능한 교육과정이 구성될 수 있을 것이다. 논문 지도와 심사 역시 화상으로 진행할 수 있다. 물론 학기별 교육과정 운영회의를 대학 순회 방식으로 개최하여 교수와 학생이 직접 만나는 기회를 마련할 수도 있을 것이다.

마침 정부 정책이 대학 간 협동과정 창설에 유리하게 변하고 있다. 교육부는 원격강의 비율 제한을 풀고 각 대학의 자율에 맡기며 석사 학위 과정을 대학 간 온라인 공동 학위과정으로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중앙일보 2020/09/09; 한국대학신문 2020/11/15). 교육부는 2021년에 접어들자 더 본격적으로 [원격교육기본법]을 상반기에 제정하고, 3월부터 대학 원격수업 규제 - 원격수업 개설 및 이수 학점 비율 상한 20%, 콘텐츠 재생시간 기준 등 - 를 폐지하며, 2학기부

터 100% 온라인 석사 학위 과정 운영을 허용한다는 업무계획을 발표하였다(교육부 2021). [고등교육법시행령] 제13조에 따르면, 이미 모든 대학은 국내대학 및 외국대학과 학사학위와 대학원 “교육과정 공동운영”이 가능하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 공동운영 대학들의 “공동명의로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 올해 교육부는 이런 공동운영 교육과정의 전면 온라인화를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뉴 노멀’, ‘공유성장’과 ‘혁신’의 이름으로 추진되는 이런 개혁을 우리가 주목하고 적극 활용해야 할 것이다.

3. 동남아 교과목 신설 및 언어교육 혁신

동남아학 전공이 창설된다면 교과목 개설과 언어교육의 시행이 뒤따르게 된다. 그런데 당장 전공 창설이 어렵다면 교과목을 개설하고 비교과 언어교육 프로그램을 가동시키는 작업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런데 대학은 과목 신설조차, 특히 강사법 시행 이후는 더욱 제한을 가하고 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기존 강좌를 폐지해야 신설이 가능하다. 그러나 외부 지원이 있을 경우 규제가 완화된다.

동남아학 과목 신설은 과목 총량 규제의 문제만이 아니라 교수 요원의 부족 문제에 의해 제한받는다. 지방 국립대의 경우도 동남아 전문전임교원은 전북대 2명, 강원대 2명, 창원대 2명, 부경대 2명, 경상대 1명, 목포대 1명뿐이다. 과목을 책임지고 지속적으로 강의할 수 있는 교원이 없고 강사조차 구하기 어렵다면 과목을 개설하기 어렵다. 교수요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동남아학 과목을 확산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여러 외부 전문가들의 특강으로 내용이 구성되는 팀티칭 강의를 구상해볼 수 있다. 물론 이럴 경우 담당 교원이 최소한 특강비를 충당할 수 있어야 된다. 대학 본부의 특성화를 위한 지원이나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다.

동남아 언어교육의 혁신 없이 동남아학의 육성은 기대할 수 없다. 동남아학 전공을 애써 창설하더라도 아직 각 대학이 여러 동남아 언어를 교육할 역량이나 동남아 언어 과목들을 개설할 여지가 없다. 다행히 동남아 언어교육의 혁신은 방학 중 집체교육 방식으로 2019년 여름부터 실험 중에 있다. 국립국제교육원이 관장하는 특수외국어교육진흥사업의 지원을 받는 부산외대(사업단장 배양수)가 전북대와 협력하여 여름방학마다 전국에서 모여든 수강생들에게 동남아 5개 언어(베트남어, 말레이-인도네시아어, 태국어, 미얀마어, 크메르어)를 교육하는 동남아언어여름캠프가 바로 그것이다. 동남아언어여름캠프는 동남아 언어교육의 강사와 수강희망생 분포에서 우리나라와 비슷한 결핍의 처지에 있는 미국(Platt 2006)의 동남아연구여름학교(SEASSI: Southeast Asian Studies Summer Institute) 프로그램을 응용한 것이다. 각 대학은 이런 초대학적 프로그램과 연계함으로써 언어교육 필요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정부의 특수외국어교육진흥사업도 이런 식의 혁신을 통한 교육 확산 전략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4주간 80시간 교육하고 정규학점이 부여되는 SEASSI와 달리, 이 여름캠프는 2주간 45시간 교육하는 비교과 프로그램으로 시행되고 있다. 미국의 SEASSI는 외국 언어 학습 및 지역연구를 위한 장학금(FLAS: Foreign Language and Area Studies Fellowships Program) 덕분에 수십 년간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우리는 이런 장학 제도가 없다. 이 장학금은 미국 교육부가 전략적으로 중요한 해외지역을 연구하고 현지어를 배우려는 학부생들과 대학원생들에게 개별적으로 지급하는 장학금이다. 우리 정부도 FLAS같은 해외지역연구지향의 목적성 장학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 장학제도는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데 배우려는 학생은 극히 소수인 ‘특수 중의 특수’ 외국어 교육 진흥에 우선적으로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V. 정부의 동기부여 정책

정규 학과나 전공의 창설은 물론이고 연계전공이나 협동과정의 창설, 심지어 한 과목의 개설조차도 외적 동기부여가 없다면 널리 시도되기 어렵다. 이런 작업은 결국 교원 중에 누군가 나서서 해야 한다. 그런데 기존 학과에 소속된 교원들에게 연계전공이나 협동과정을 창설하고 운영하는 것은 부가적인 노동일 수밖에 없다. 누군가 나서더라도 혼자서는 연계전공이나 협동과정을 만들 수 없다. 소속 학과의 지지와 다른 학과의 참여를 이끌어내야 한다. 규정을 앞세우고 소관을 따지는 대학 본부 실무자들도 설득시켜야 한다. 외부 지원이라는 특별한 인센티브 없이는 이러한 난관을 모두 돌파하기가 쉽지 않다.

이러때면 전북대의 동아시아·다문화 연계전공은 2019년에 종료된 교육부의 학부교육선진화(ACE)사업의 지원 덕분에 창설될 수 있었다. 이 사업은 대학별로 융·복합 교육과정을 창설토록 유도한 바 있다. 전북대의 경우 이 사업의 수주를 위해 대학 본부가 융·복합 연계전공 창설을 권장하고 사업 수주 이후에 신설 연계전공마다 매년 2천만 원씩 4년간 지원하였다. 지원금은 전공 교육과정 개발연구비, 신규 전공과목 개발연구비, 전문가자문 및 특강료, 웹사이트 개설비, 회의비, 교육조교(TA) 장학금 등으로 사용되었다. 이 연계전공이 부산외대와 함께 운영하는 동남아언어여름캠프도 기본적으로 정부의 특수외국어교육진흥정책의 지원을 부산외대가 수주하였기 때문에 시도될 수 있었던 것이다.

우리 정부는 국가적 필요를 감안하여 교육부뿐만 아니라 다른 부처들도 대학의 교육과정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통일교육, 공공외교, 국제개발협력 분야 교육과정 지원 사업은 정치학자들에게 익히 알려진 교육과정 지원프로그램으로서 국가의 전략적 목표에 부응하는 고등교

육을 촉진하려는 선례들이다. <표 6>에 제시된 프로그램들은 부처별 기관별로 제각기 운영하는 정부의 고등교육과정 지원 사업의 극히 일부로서 그야말로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표 6〉 정부의 대학 교육과정 지원 사업: 몇 가지 사례

명칭	지원기관	지원현황 (누적)	지원 기간	지원규모 (대학별 연간)	지원내용
통일교육 선도대학 지정·육성 사업	통일교육원 (통일부)	14개 대학	4년	1억 5천만 - 2억 2천만 원	전공 개발 포함
공공외교 역량강화대학 지원사업	국제교류재단 (외교부)	15개 대학	1년	3천만 원	교과목 개설 + 비교과 프로그램
대학교 국제개발협력 이해증진사업	국제협력단 (외교부)	30개 대학	1년	2천 8백만 원	교과목 개설 + 국내외 현장활동
CAMPUS Asia-AIMS사업	한국대학 교육협의회 (교육부)	10개 대학	5년 (2년*)	1억 9백만 원	교과목 개설 + 교환학생

출처: 각 지원기관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공고문(2020년 3월)

* 2019년 신규 선정 사업단(6개)의 경우.

통일부가 연간 2억 2천만 원씩 4년간 지원하는 “통일교육 선도대학 지정·육성 사업”은 통일교육 시행대학을 육성하는 사업으로 교과목 개설, 연계전공과 협동과정 개발 및 운영, 시민교육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가장 규모가 크고 전공 창설을 유도할 수 있는 지원 사업이다.

외교부 산하 국제교류재단이 연간 최대 3천만 원씩 1년간 지원하는 “KF 공공외교 역량강화대학” 사업은 공공외교 관련 정규 교과목의 개발 및 운영, 그리고 공모전, 학회, 시민 대상 특강 형식의 비교과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역시 외교부 산하인 국제협력단이 지원하는 “대학교

국제개발협력 이해증진사업”은 교과목 개설과 국내외 현장 활동, 개발 협력 관련 행사 개최 등을 내용으로 연간 최대 2천 8백만 원을 지원한다. 두 사업은 교과목 신설을 유도한다. 그런데 후자는 국제개발협력 학과 신규개설을 추진 목표와 사업성으로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전공 창설을 촉진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동남아와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AIMS(Asian International Mobility for Students) 사업은 2018년에 교육부의 후원으로 시작된 사업으로서 한-아세안 대학 간 학부생 교류(교환학생)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아세안 학생들을 국내 대학으로 초청하고 한국 학생들은 아세안 회원국 대학에 파견한다. 이 사업은 학생 교류 증진에 기여하지만 동남아학 교과목 개설이나 학과 창설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 그렇지만 우리 학생들을 아세안 대학에 파견하므로 파견 학생들에 대한 현지어 교육 필요는 증대하는 효과를 낳고 있다.

정부에서 동남아 관련 교육과정의 확산을 ‘진정으로’ 원할 경우, 이러한 선례들을 비교 검토하여 적절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함으로써 과목개설, 언어교육, 연계전공, 협동과정, 학과창설 등 다각적인 효과를 유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확산성을 기하려면 소액 다수 지원 방식을 취할 것을 강조하고 싶다. 많은 과목이 개설되고 많은 학생들이 언어를 배울 수 있도록 펼쳐서 지원하라는 것이다. 그리고 전공 신설을 위한 지원의 경우는 전공 주임 교원 채용을 조건으로 명시해야 장기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도 아울러 강조하고 싶다. 전북대의 경우와 서강대의 경우를 비교하면 전임교원의 채용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절감할 수 있다. 전북대는 동남아를 포함하는 동아시아 다문화 연계전공을 창설하였지만 동남아 전문 교원의 부족으로 인하여 동남아시아학 전공으로 특화 발전시킬 수는 없었다. 반면에 서강대는 전임교원 5명의 채용 덕분에 동남아시아 전문 교육과정을 창설할 수 있었다. 연계전공이든 협동과정이든 그 전공을 전담하는 전임교원

이 단 한 명이라도 채용되어야 전공의 지속성, 안정성, 전문성이 담보될 수 있을 것이다.

VI. 맺음말

2019년 말에 수행된 싱가포르동남아연구소(ISEAS)의 동남아 엘리트 인식 설문조사에서 미·중 경쟁 상황이 유발하는 피해를 극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제3의 전략적 파트너로서 가장 선호하고 신뢰하는 세력은 일본으로 나타났다. 일본은 전체 응답자 38.2%의 선호와 신뢰를 받았고, 미얀마, 필리핀, 베트남, 인도네시아, 브루나이에서 1위를 차지했다. 유럽연합이 31.7% 지지를 받아 그 뒤를 이었는데, 싱가포르, 태국,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라오스에서 1위를 차지했다. 한국은 3%를 얻어 호주, 인도, 러시아, 뉴질랜드에 이어 7위이자 최하위를 차지했다(ISEAS 2020). 2020년 말부터 2021년 1월 사이에 진행된 동남아 엘리트 설문조사도 유사한 결과가 나왔다. 유럽연합(40.8%)이 일본(39.3%)을 약간 앞선 상태에서 선호를 양분하고 있으며, 한국은 전년도보다 0.2% 상승한 3.2%의 선호를 받았을 뿐이다. 그렇지만 인도네시아에서 7.8%를 얻어 유럽연합과 일본에 이어 호주와 공동 3위에 오른 점은 제3세력으로서 한국 선호가 전혀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준다(ISEAS 2021, 34).

신남방정책의 열정적인 추진에도 한국의 존재감이 동남아에서 미미한 상태에 머무는 이유로서 우리는 한국인 동남아 전문가의 부족과 우리 대학의 동남아학 교육의 결핍도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마침 이 설문조사는 소프트파워(soft power) 파악의 일환으로 고등교육에 관해서도 묻고 있다. 자신이나 자녀가 장학금을 받고 대학에 유학을 간다면 가장 선호하는 나라가 어디인지를 묻는 질문에서 미국(29.7%), 영국

(19.9%), 유럽연합 회원국(13%), 일본(12.4%), 호주(12.3%), 뉴질랜드(4.7%), 아세안 회원국(3.7%), 중국(3.3%)에 이어 한국(0.9%)은 인도(0.3%)와 함께 최하위권을 차지했다. 전년도 조사 때 한국은 0.8%의 선택을 받았으므로 0.1%의 향상에 안도할 수 있겠다. 그러나 국가별로 살펴보자면 응답자 가운데 한국을 선택한 이가 단 한 명도 없는 나라가 전년도는 캄보디아와 라오스뿐이었는데 올해 발표에서 싱가포르와 태국이 추가되어 4개국으로 늘었기에 오히려 악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ISEAS 2021, 53; ISEAS 2020, 54).

우리는 이 논문에서 동남아 관련 학과(전공), 교과목, 언어교육 현황에 대한 조사를 통해 현재 우리나라 대학에서 동남아 관련 교육이 그 필요성에 비해 여전히 희소성과 편중성 상태에 머물러 있다고 진단하였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동남아지역학을 교육하는 학과나 전공의 신설, 학부 연계전공 및 대학원 협동과정의 창설, 동남아 교과목 개설 및 동남아 언어교육의 혁신적 실천, 정부의 각종 동기부여 정책 등을 제안했다. 전공 교육을 위한 여건이 불비한 대학에서 추진 가능한 단계별 전략으로 기획한다면, 우선 교과목 개설과 언어집체교육 참여 유도로부터 시작하여, 연계전공이나 협동과정 창설, 최종적으로 학과나 학부 신설로 나아가는 것이 적당할 것이다. 정부의 신남방정책도 교과목 개설과 언어교육지원처럼 낮은 단계부터 시작하여 연계전공과 협동과정 창설을 지원하는 중간 단계 이상의 지원으로 이행하는 상향 전략을 취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정부는 국가 전략적으로 필요하다면 대학의 교육과정을 변화시킬 수 있을 힘과 자원을 지니고 있고 그렇게 해왔다. 그래서 이 논문의 요지를 작년 1월에 대통령 직속 신남방위원회를 찾아가 발표했고 숙고하겠다는 답을 들었다. 그러나 1년이 지나도록 아직 아무런 소식이 없다. 그러니 공은 다시 우리 손으로 넘어왔다. 교과목 개설과 언어캠프 학생 파견, 그리고 학부 연계전공의 창설 같은 노력을 각자의 자

리에서 각자의 자원을 동원하여 추진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할 일도 있다. 동남아언어캠프의 창설이 그러했다. 아직 해보지 않은 협업은 대학원 협동과정의 초대학적 창설과 운영이다. 코로나19 대유행 ‘덕분에’ 교육부가 전면 원격수업을 통한 학위 수여를 허용할 뿐만 아니라 권장하는 새로운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학령인구 감소 ‘덕분에’ 지방국립대들은 초대학적 연계를 통한 교육 혁신을 추구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이런 기회를 우리가 함께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 국립대 소속 동남아 연구자들이 초대학적 협동과정을 먼저 창설하고 사립대의 대학원과 원격강의 학점교류를 추진하는 방안이 우선적으로 상상될 수 있겠으나, 중요한 점은 전국적 협동과정 창설이라는 대의를 위해 우리가 지역거점대학이니 지역중심대학이니 하는 국립대 내부의 사소한 경계는 물론이고 국립대와 사립대, 지방과 서울의 경계도 뛰어넘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투 고 일: 2021년 01월 23일

심 사 완 료 일: 2021년 02월 22일

계 재 확 정 일: 2021년 02월 22일

참고문헌

- 고혜선 · 김시경 · 이용선 · 박종욱. 2004. “학제 간 협동에 의한 국제 지역 연계 전공 연구.” 2002 대학교육과정개발연구지원사업 연구결과 보고서.
- 교육부. 2020. “2021학년도 대학 학생정원 조정계획 보완사항.”
- _____. 2021. “2021 업무계획: 함께 성장하는 포용사회, 내일을 열어가는 미래교육.” 1월 26일.

- 교육부 고등교육정책과. 2020. “2021학년도 대학 학생정원 조정계획.”
- 교육통계서비스. 2019. “2019 고등교육기관(대학) 학교별 학과별 데이터셋.”
<https://kess.kedi.re.kr/index> (검색일: 2020.03.03).
- 구본석·서정목. 2019. “융복합 전공으로서 베트남어 및 지역연구의 구성
과 운영에 관한 연구.” 『문화와 융합』 41(5): 995-1020.
- 국가법령정보센터. “고등교육법시행령.”
<https://www.law.go.kr> (검색일: 2021.02.10).
- 국립국제교육원. 2021/01/28. “2021년 특수외국어교육진흥 시행계획.” 국제
교류협력부 특수외국어지원팀.
- 김경석. 2008. “지역학과 프랑스어 교육.” 『프랑스어문교육』 28: 427-446.
- _____. 2009. “프랑스(어) 관련 학과의 지역학교육 표준화 모형.” 『프랑스
학연구』 48: 315-336.
- 김상욱·이혁구. 2016. “지역학의 교양교육 방법론에 대한 연구.” 『대학교
양교육연구』 1(1): 5-35.
- 김순임·하수권. 2004. “독일어 관련 전공교육과정에서의 지역·문화 교육의
필요성과 교육과정 도입 사례 연구.” 『텍스트언어학』 17: 27-58.
- 김영선. 2019. “김영선의 ‘ASEAN 톺아보기’ (31): 동남아학을 진흥시켜
야.” 『한국경제』 (11월 25일).
<https://www.hankyung.com/opinion/article/2019112517711>(검색
일: 2020.01.04).
- 김준호. 1999. “한국 대학 문화 지역학 교육 개선방안.” 『커뮤니케이션학
연구』 7(1): 439-468.
- 김진기. 1998. “한국에서의 동북아 지역학과: 대학교육의 현황과 문제점.”
『세계지역연구논총』 12: 35-55.
- 문재인.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환영 만찬사.”
<https://www1.president.go.kr/articles/7652>(검색일: 2019. 1. 10).
- 박사명. 2008. “한국의 동아시아학 교육과정.” 『사회과학연구』 47(1): 255-70.
- _____. 2019. “대학의 동남아 관련 학과 증설을 위한 청원.” 9월 1일. (미간행).

- 브레인뉴스. 2021/01/13. “벼랑 끝 지방대 57% 사실상 정시 미달 … 전북대·경북대 저점국립대도 미달 임박.”
<https://hibrain.net/braincafe/cafes/48/posts/407/articles/411068?pagekey=411068&displayType=TIT&sortType=RDT>(검색일: 2021.01.27).
- 신윤환·이성형. 1996. “한국의 지역연구 현황과 과제.” 『국가전략』 2(1): 155-185.
- 연합뉴스. 2018/10/05. “부실한 아세안 교육…관련 전공 개설 대학 1.6% 불과.”
<https://www.yna.co.kr/view/AKR20181015060200371>(검색일: 2020.12.21).
- 유수연. 2013. “상호문화 학습을 위한 외국어교육에서의 지역학의 역할.” 『국제지역학논총』 6(1): 79-94.
- 이성형·신윤환·송주명. 2010. “해외지역 연구의 지원 및 인력양성 방안 연구.” 한국연구재단 정책연구보고서.
- 이재현. 2018. “신남방정책이 아세안에서 성공하려면?” 아산정책연구원 이슈브리프 2018-04호. 1월 24일.
- _____. 2019. “신남방정책 2기, 토대를 강화하자.” 『국민일보』(9월 10일).
<http://m.kmib.co.kr/view.asp?arcid=0924097237&code=11171314&cp=du#top>(검색일: 2021.02.18).
- 이진희. 2007. “문화교육 관점에서 독일어문학 관련 학과의 교과과정 연구.” 『독일어문학』 39: 297-321.
- 이현송. 2004. “미국 지역학의 개념과 교육 프로그램.” 『국제지역연구』 13(1): 39-61.
- 임상래. 2001. “외국어교육과 지역학: 스페인어교육을 중심으로.” 『국제지역연구』 5(2): 275-296.
- 전북대. 2021. “2021학년도 대학원 학과 신설 및 폐지, 명칭 변경 현황.” 전북대학교 대학원.
- 전제성. 2017. “한-아세안 외교: 통상을 넘어 평화와 균형의 동반자로.” 『월

- 간 헌정』 12월호.
- _____. 2018. “한국의 동남아연구 성장과 포괄성 문제.” 『동남아시아연구』 28(4): 1-29.
- _____. 2019. “한국에서 동남아학계의 형성과 발전.” 안청시·전제성 편. 『한국의 동남아시아연구: 역사, 현황 및 분석』.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 전제성·이성형·김용복. 2004. “한국의 해외지역연구의 실태와 과제.”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정책기획과제 연구보고서.
- 전제성·이재현. 2008. “한국의 동남아학 교육과정과 지역연구자 육성모델 연구.” 『동남아시아연구』 18(2): 255-297.
- 정남모. 2011. “프랑스어권 문화·지역학 교육의 방향성 및 강의 내용에 대한 연구.” 『프랑스문화예술연구』 36: 609-640.
- 정은숙. 2019. “미국의 동남아언어어류학교(SEASSI)의 성과와 과제.” 전동연 초청 특강. 6월 5일. 전북대학교.
- 조선일보. 2020/07/20. “베트남학전공·글로벌한국어과 신설 AI ‘챗봇’으로 교과 취업 맞춤 상담.”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7/19/202007190944.html(검색일: 2021.02.16).
- 중앙일보. 2020/09/09. “대학 원격수업 학점 제한 사라져…‘온라인 석사’도 허용.”
<https://news.joins.com/article/23868084>(검색일: 2020.11.30).
- 하채균. 2018. “한-아세안 협력의 ‘약한 고리’: 한국의 동남아시아 교육.” 한아세안센터 아세안토크 2018-07.
- 한국국제교류재단. 2020. “2020-2021년도 KF 공공외교 역량강화대학 지원사업 안내문.”
<http://www.kf.or.kr/?menuno=3291&bbsno=1917&boardno=1&btag=3FFE06DE5EC3CEBFD58AD8D0674F7831&siten=11&act=view> (검색일: 2020.03.03).
- 한국교육개발원 고등교육통계팀. 2019. 『2019 학과(전공) 분류 자료집』.

진천: 한국교육개발원.

한국대학신문. 2020/11/15. “‘원격교육 활성화 청사진’ 현실화 … 코로나19 이후 과제는.”

<http://news.unn.net/news/articleView.html?idxno=236952>(검색일: 2020.12.01).

ISEAS. 2020. *State of Southeast Asia: 2020 Survey Report*. Singapore: ISEAS(Institute of Southeast Asian Studies).

_____. 2021. *State of Southeast Asia: 2021 Survey Report*. Singapore: ISEAS(Institute of Southeast Asian Studies).

Park, Sa-Myung. 2008. "Curriculum Development on East Asian Studies: The Case of Korea." The paper presented at The Workshop of NEAS (Network for East Asian Studies), Chulalongkorn University, Bangkok, Thailand, March 10.

Platt, Martin. 2006. “The Academic’s New Clothes: The Cult of Theory versus the Cultivation of Language in Southeast Asian Studies.” Cynthia Chou and Vincent Houben, eds. *Southeast Asian Studies: Debates and New Directions*. Singapore: ISEAS(Institute of Southeast Asian Studies).

웹사이트

부산대 국제전문대학원. <https://gsis.pusan.ac.kr/gsis/index.do> (검색일: 2021.02.20).

서강대 동남아시아학 협동과정. https://seasia.sogang.ac.kr/seasia/index_new.html(검색일: 2021.01.21).

서울대 국제대학원. <https://gsis.snu.ac.kr/>(검색일: 2021.02.21).

서울대 아시아언어문명학부. <https://asia.snu.ac.kr/> (검색일: 2021.02.21).

서울대 국제농업기술대학원. <https://gsiat.snu.ac.kr/> (검색일: 2021.02.20).

전북대 동아시아·다문화 융·복합 연계전공. <https://eams.jbnu.ac.kr/>(검

색일: 2021.02.20).

한남대 창의융합학부 베트남지역학 전공. http://dh-school.hannam.ac.kr/su_b2/menu_11.html(검색일: 2021.01.15).

AIMS 프로그램. <https://aims.campusasia.kr>(검색일: 2021.02.15).

SEASSI(Southeast Asian Studies Summer Institute). <https://seassi.wisc.edu>
(검색일: 2020.04.20).

Abstract

Higher Education for Southeast Asian Studies in Korea: Realities and Challenges

Je Seong JEON

Jeonbuk National University

Sa-Myung PARK

Gangwon National University

Hyun Kyoung KIM

Jeonbuk National University

Southeast Asian studies education is in the best period in Korean history due to the government's New Southern Policy, but it is still underdeveloped. It is still scarce in terms of opening majors and subjects and is limited to some cities. If there is no change in social perception through deepening and spreading education related to Southeast Asia, the New Southern Policy will not be effective. From the national universities, which have the effect of regional diffusion, the establishment of departments, majors or courses related to Southeast Asian studies, and innovation in Southeast Asian language education should be initiated. National universities with little flexibility in capacity need to consider the detour of the creation of interdisciplinary program for undergraduate majors and graduate schools. Interdisciplinary

graduate course could be created through an online-based linkage between universities. In order to effectively implement Southeast Asian language education in this situation where both instructors and students are insufficient in number, collective education during vacation will be an appropriate departure. In order to adapt the university's curriculum to national goals, government ministries are running various programs to support university education. If the institutions related to the promotion of the New Southern Policy want to expand the Southeast Asian studies curriculum, they need to study these support programs and come up with their own support plans. Our Southeast Asian studies academia should preemptively create education programs at universities, and frequently share information and wisdom by collectively discussing educational outcomes and challenges.

Keywords: Southeast Asian studies, higher education, interdisciplinary graduate course, interdisciplinary undergraduate major, national university, curriculum, language school, New Southern Policy